

## 미국과 한국의 여성주의상담 역사 비교 분석

김민예숙<sup>†</sup>

춘해보건대학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 30년 전쯤 도입된 상담이론인 여성주의상담이 발전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본 것이다. 탐색의 방법으로 여성주의상담이 탄생한 미국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를 비교 분석해보았다. 미국의 역사는 40년 정도이고 한국의 역사는 30년 정도이다. 두 나라 모두 여성운동의 맥락에서 여성주의상담이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몇 가지 차이점이 드러났다: 미국에서는 상담전문가가 한국에서는 상담활동가가 여성주의상담을 주로 이끌어왔다는 차이점, 미국에서는 상담전문가집단이 전문적 성취를 이루었으나 여성주의상담의 뿌리인 여성운동의 정신이 지켜지고 있는가 자문하는 지점에 이르렀고, 한국에서는 여성주의가치관은 지켜왔으나 상담전문가의 존재가 확보되지 못해 여성주의상담에 대한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차이점, 미국에는 소수이지만 여성주의상담을 위한 대학원 수준의 교과과정이 있으나, 한국에는 교육기관이 전무하다는 차이점 등이다. 비교를 통해 한국의 여성주의상담자의 과제가 된 것은 교육기관 설립, 상담모델의 개발, 여성주의 가치관의 고수 그리고 상담자의 작업조건 준비이다.

주요어 : 여성주의상담, 역사, 상담전문가, 상담활동가, 여성주의 가치관

\* 본 논문은 2011년도 춘해보건대학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김민예숙, 춘해보건대학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는 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여성주의상담(feminist counseling)이라는 상담이론이 발전되게 하기 위하여, 미국의 여성주의상담 역사와 한국의 여성주의상담 역사를 비교하려는 것이다. 이장호(1982)는 상담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내담자)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상담자)과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과제의 해결과 사고·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성주의상담은 내담자가 도움이 필요해진 이유가 여성 및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에 있다는 발견에서 출발한 상담이다. 따라서 김민예숙(2010)은 여성주의상담을 “여성주의철학의 관점에 입각하여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의 변화를 조력하는 상담”이라고, 여성주의철학을 “성차별주의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지만 사회경제계층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신체능력차별주의, 연령차별주의, 자민족중심주의, 이성애주의 등 인간에 대한 모든 차별과 억압을 극복하려 하고 차별과 배타가 없는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인간해방철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상담자가 항상 여성주의철학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상담한다는 것으로, 내담자가 피해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억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여성주의상담자에게는 여성주의자일 것이 요구되고 (Worell & Remer, 2004), 여성주의상담을 비성차별상담과 구별하는(Gilbert, 1980)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상담이론 교재로 사용되는 Corey(2001)의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제6판에는 여성주의 치료가 소개되고 있지만, 교과과정을 통해 상담학도에게 여성주의상담이 가르쳐지는 경우는 드물다.

여성주의상담에서는 상담자를 상담전공자가 아닌 상담활동가(activist counselor)와 상담전문가인 상담전문가(professional counselor)로 나눈다(Enns, 2008).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상담활동가들이 주로 여성인권단체와 폭력피해여성상담소에서 폭력피해여성을 무료로 상담하고 있다. 그 상담활동가들을 교육하고 슈퍼비전할 상담전문가, 또 그들이 의뢰할 때 그들의 내담자를 개인상담하고 집단상담할 상담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연구자는 여성주의상담 슈퍼바이저로서도 활동하는데, 폭력피해여성상담소들로부터 여성주의 슈퍼바이저의 수가 적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 그리고 폭력피해여성이 아니면서 여성주의상담전문가를 요청하는 여성내담자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기에 (연구자에게 서울 거주 여성주의상담전문가를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연구자와 상담하기 위해 서울에서 울산까지 오는 내담자도 있다), 여성주의상담이 널리 알려져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수준으로 발전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연구자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 연구자는 2008년에 미국과 한국의 여성주의상담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을 수집하는 논문을 썼다. 탄생의 역사를 아는 것이 여성주의상담자의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담자 교육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 두 나라의 역사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여성주의상담의 발전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 문헌리뷰의 기준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2011년 시점에서 한국 여성주의상담의 발전에 필요한 것들을 찾

아보는 것이다. 그것을 찾기 위해 본 논문은 미국의 여성주의상담 역사와 한국의 여성주의상담 역사를 비교해보려는 것이다.<sup>1)</sup> 그 이유는 미국은 여성주의상담이 시작된 나라이고, 한국은 미국의 여성주의상담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비교는 한국의 발전에 시사해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비교를 위해 먼저 미국을 분석하고, 다음에 한국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양국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미국의 여성주의상담 역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40년의 미국 여성주의상담 역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할 것이다. 연구자가 모든 문헌들을 읽고 독자적으로 역사를 분석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은 연구자의 한계를 넘는 일이라 자신의 역사를 분석한 미국 여성주의상담자의 논문에 의지하였다. 그 논문들은 미국의 상담저널인 *The Counseling Psychology*의 여성주의상담 특집호에 실린 미국 여성주의상담 20년을 정리하는 Enns(1993)의 논문과 여성주의상담 전문저널인 *Women & Therapy*에 실린 90년대에 공헌한 여성주의상담자를 분석한 Porter(2005)의 논문, 그리고 2002년에 열린 여성주의상담소 연차대회에서 미래의 여성주의상담과 교육을 전망한 내용을 담은 Hill과 Ballou(2005), Hill과 Anderson(2005), Cohen과 Ballou(2005), Liriano(2005), Ballou(2005)의 논문들이다.

한국의 여성주의상담 역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서, 기타의 다른 문헌과 연구자의 경험(우리나라 여성학 첫수강자(1977), 여성의 전화 1기 상담원 교육생(1983), 인천여성의 전화

창립회장(1994-98), 김민예숙여성주의상담연구실(2002-) 운영으로 30년의 한국 여성주의상담 역사를 새롭게 분석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여성주의상담 역사를 분석한 것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여성주의상담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을 것이다.

#### 미국 여성주의상담의 역사

미국의 여성주의상담은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제2물결 여성운동을 배경으로 1970년대 초에 탄생하였다. 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미국 여성주의상담의 역사를 네 개의 십년으로 나누고, 각 십년마다 그 시기의 주요 성과를 기술하겠다. 네 개의 십년으로 나누는 이유는 미국의 여성주의상담자들이 십년마다 역사를 돌아보는 논문을 썼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기마다 사회적 성과를 정확하게 기술하기 어려워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연구적 성과와 나누지 않고 기술하였다

#### 첫 번째 십년(대략 1970년대)

Friedan(1963)의 “여성의 문제에는 이름이 없다”라는 말로 1960년대의 제2물결 여성운동은 시작되었다. 특히 두 가지 흐름이 여성주의상담의 탄생에 기여했다.

첫째 흐름은 급진주의적(radical) 여성운동이었다.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투쟁한 엘리트 중심의 제1물결 여성운동과는 달리 제2물결 여성운동은 풀뿌리 운동으로서 대중과 함께 한 운동이었다. 여성 대중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이 5명에서 15명의 여성이 모여 인도자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한 것이 의식향상집단이었는데, 집단과정으로부터 여성 개인의 문제

1) 미국의 여성주의상담 역사에 관한 사실들의 일부는 김예숙(2008)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조건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여성은 공동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공동의 해결책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공동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때 의식향상집단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정신분석으로 교육받고 전문상담자가 된 여성들은 여성의 심리만으로는 여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급진적이 되었다. 그리고 인도자 없이 하는 의식향상집단에서 좌절감을 느낀 여성 참가자들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여성 상담자가 인도자 역할을 선택하면서 여성주의상담이 시작된 것이다. 1970년에 최초의 강간위기센터가 설립되었고,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합동여성주의상담센터들도 설립되었다(Enns, 1993).

이 시기에 여성주의상담은 전통적 상담과의 차이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여성주의상담은 내담자를 병리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거부했고, 내담자 개인의 문제를 내적 심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에서 온다고 보았고, 전문가만이 내담자를 안다는 위계관계를 포기했다(Greenspan, 1995). 그 결과 내담자들은 여성주의상담이 기존의 상담보다 변화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여성주의상담이 역량강화를 시키고 여성경험의 정당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Enns, 1993).

둘째 흐름은 상담전문가로서 그 당시의 상담관행을 비판한 자유주의적(liberal) 여성주의였다.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상담에서의 성편견을 연구한 것이다. 그 결과 심리치료자들이 가상적인 건강한 여성이 가상적인 건강한 남성이나 가상적이고 성별을 모르는 건강한 인간보다 더 복종적, 덜 모험적, 더 쉽게 영향받고, 덜 경쟁적, 더 감정적, 덜 객관적이라고

지각한다는 연구가 나와 성역할 고정관념의 존재를 드러냈다(Broverman et al., 1970). 같은 연구가 1980대 중반에 행해졌을 때, 성편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심리치료자들이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신건강에 대한 더 단일하고 더 양성적인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자유주의 여성주의 연구자들의 기여로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런 연구와 관련하여 여성주의상담자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사회화를 재사회화시키는 양성성치료와, 행동치료의 자기표현훈련을 상담기법으로 사용하게 되었다(Enns, 1993).

그리고 여성주의상담의 실천을 위한 철학적 안내지침이 마련되었다. Gilbert(1980)는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평등하다”라는 것으로 여성주의상담의 원리를 정리하였다.

또한 여성주의상담의 상담관계를 평등하게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여성주의상담자들은 내담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권리를 자각하게 격려했고, 인간들 사이의 개인적 권력을 평등화하는 것을 강조했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추천했다(Rawlings & Carter, 1977).

그 외에 첫 번째 십년에 공헌한 이론가들로는 Chodorow, Sturdivant, Rawlings와 Carter, Williams가 있다. Chodorow(1978)는 성역할 사회화 이상의 것인 성역할 무의식이 모성을 재생산하므로, 여성주의상담은 여성 무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여 여성주의 정신분석의 길을 열었다. Sturdivant(1980)는 성역할 사회화가 여성문제의 원인이어서 여성의 재사회화가 여성주의상담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Rawlings와 Carter(1977)는 여성의 성역할 내면화가 여성의 낮은 자존감과 자기협

오를 가져오므로, 여성주의상담은 성역할 사회화를 재사회화시켜야 한다고 여성주의상담의 목표를 제시했다. Williams(1976)는 여성주의상담이란 여성내담자로 하여금 피해자 행동을 포기하게 하고, 직업을 가져 경제적 평등을 이루게 하는 여성주의상담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Contratto & Rossier, 2005).

1978년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한 여성주의상담자가 윤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지침 13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성역할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② 사회내의 성차별적 관행을 인식하고 내담자의 선택에서 이러한 관행의 탐색을 촉진할 것, ③ 현재의 성역할과 성차별주의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지식을 쌓을 것, ④ 성편견이나 성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론을 채용할 것, ⑤ 성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⑥ 내담자의 문제가 사회적, 상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을 것, ⑦ 치료관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주고 합의를 볼 것, ⑧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타자와 나눌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내담자의 동의를 구할 것, ⑨ 권위있는 치료절차라 하더라도 여성의 고정적인 의존심을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치료가 아닐 것, ⑩ 내담자의 주장적 행동을 수용할 것, ⑪ 신체적 학대나 성폭력과 연관된 여성내담자는 범죄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질 것, ⑫ 여성내담자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탐색을 장려하고 그녀 자신의 성적 선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것, 그리고 지침 ⑬ 은 여성내담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그녀를 성적 대상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APA, 1978, 이규미(1996)에서 재인용).

첫 번째 십년이 끝나갈 무렵 Kaschak(1981)은 여성주의상담의 향후 십년 과제는 여성주

의와 기존 형태의 상담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 두 번째 십년(대략 1980년대)

이 시기는 여성주의상담을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가진 상담이론으로 정의하는 노력을 한 시기이다. 여성주의상담의 단계, 여성주의를 상담에서 구체화하는 방법, 여성주의 성격이론 등이 시도되었다.

첫째로 심리치료자들이 사용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기존 진단명을 비판하며, 남성성의 문제를 정의하는 진단명을 제안했다. Kaplan(1983)은 ‘독립적 성격장애’와 ‘제한적 성격장애’를, Caplan(1991)은 ‘망상적 지배적 성격장애’를 제안한 것이다. Lewin과 Wild(1991)는 다면적 인성검사에 남성성-여성성 척도가 들어가게 했다. 여성주의상담자들은 대안적 총평법으로 젠더역할 분석을 사용하기도 했다. 외적 조건의 영향을 인정하기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명은 환영을 받았지만, 외상이 일상적인 여성들을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Brown(1992)은 ‘학대와 억압 초래 장애’를 제안하기도 했다 (Enns, 1993).

둘째로 여성주의상담자들은 기존 성격이론을 비판하며, 여성주의 성격이론의 필요성을 말했다. Lerman (1986)이 그 이론이 충족시켜야 할 여덟 가지 가정을 제시했다. 그것들은 ① 임상적으로 유용할 것, ② 여성의 다양성 (계층, 인종, 성적 지향, 민족성, 삶의 양상)을 포괄할 것, ③ 여성을 긍정적으로 볼 것, ④ 여성의 경험에서부터 나올 것, ⑤ 경험적 자료에 긴밀하게 연결될 것, ⑥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의 얽힌 관계를 인식할 것, ⑦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진 특정 개념을 피할 것, ⑧ 여성

주의상담을 지지할 것 들이다.

셋째로 여성주의상담자들은 여성주의와 기존 상담이론을 통합하려 했다. 아들러치료,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치료와의 통합이 시도되었고, 1970년대에 비판되었던 정신분석이 그 유용함을 인정받았고, 반대로 수용되었던 가족치료가 비판받았다. 여성주의상담자들은 정신분석의 무의식과 억압 개념을 수용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젠더 정체성을 가지느냐, 어떻게 남성지배와 가부장제가 재생산되느냐, 자연과 생물학이 어떻게 문화에 영향을 미치느냐, 남성지배가 어떻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느냐, 여성들이 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가족이 어떻게 여성비하와 남성지배에 공헌하느냐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반면에 가족치료가 가족이 놓여있는 맥락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가족구성원의 역동으로만 설명하기에, 가족 내의 폭력(아내구타, 근친강간, 아동학대)을 사소화시키고 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를 비난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비판하였다. 여성주의상담자들은 여성주의 가족치료가 충족시켜야 할 네 가지 가정을 제시했다. ① 젠더 고정관념에 제한되지 않은 행동을 모델로 할 것, ② 젠더 고정관념과 가족 내 권력·보상·노동의 할당의 관계 그리고 여성의 사회화와 자원의 접근권과 가족에 대한 책임의 관계에 민감할 것, ③ 성차별적 사고가 개인의 선택과 과제와 역할 재분배를 방해한다는 것을 검토할 것, ④ 어떤 개입도 젠더 함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것 들이다(Enns, 1993).

네 번째로 여성주의상담자들은 여성주의상담을 다양한 문제에 적용했다. 1970년대에 시작된 아내구타와 성폭력 이외에 실패공포/사기꾼 증상, 노년기 여성 문제, 중독, 섭식장애,

신체 이미지 문제, 성문제 등을 다루는 여성주의상담을 했다. 새로 등장하는 문제에 이름을 붙이고 재개념화하였고 기법으로 자기표현 훈련, 이미지기법, 역할극, 행동수정, 대처기술 훈련, 인지재구조화, 자기확언과 자기양육기술, 결정훈련 등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에는 집단상담이 증가하였다(Enns, 1993).

다섯 번째로 유색여성 여성주의상담자들로 부터의 비판이 있었다. 여성의 공통점에 초점을 맞춘 1970년대의 여성주의상담은 중산층의 백인여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을 포괄하는 여성주의상담이 되려면 인종차별·성차별·계층차별의 해로운 효과를 인정하고, 인종/민족 소수집단과 관련된 분노와 자기격하의 감정을 탐색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들의 유용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환경과 내적 경험의 상호작용을 명료화하고, 사회의 패턴을 변화시킬 기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던 것이다. 여성의 다양성을 포괄하기 위해 여성주의상담 내에서 다문화적 상담이 발달하였다(Enns, 1993).

여섯 번째로 여성주의상담자들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당시 상담자의 성별이 대부분 남성이고 남성상담자의 비윤리성이 문제되던 1970년대에는 여성이 상담을 하면 평등이 이루어져 윤리적 문제가 없으리라는 소박한 생각을 했다. 그러나 여성주의상담자들이 많아지면서 내담자에 대한 성적 착취를 포함한 권력 문제가 생겨, 1982년에 설립된 여성주의상담연구소(FTI)가 1990년에 다섯 가지 영역에서 여성주의 윤리 지침을 만들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문화적 다양성과 억압에 대한 인식**

- A. 여성주의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B. 여성주의상담자는 자신의 민족과 문화적 배경, 성별, 계급, 나이, 성적 정체성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인식한다. 그녀는 다른 민족, 다른 문화적 경험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 C. 상담자는 문화적 경험적 차이를 존중한다.
- D. 여성주의상담자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직면하며, 이를 변화시켜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II. 권력 차이에 대한 인식**

- A. 여성주의상담자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권력차이에 대해 인식한다.
- B. 여성주의상담자는 내담자가 심리치유 과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개방한다.
- C. 여성주의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상호과정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인 협상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그녀는 심리치유의 이슈를 명백하게 만든다.
- D. 상담자는 내담자가 권력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녀는 내담자에게 권리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그녀는 내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III. 중첩적인 관계들에 대한 인식**

- A. 여성주의상담자는 다양하고 중첩적인 관계들 간의 복잡성과 갈등을 인식해야 한다. 그녀는 내담자에게 모욕을 주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관계들을 모니터해야하

는 책임이 있다.

- B. 여성주의상담자는 지역사회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녀는 내담자와의 관계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 C. 특히 제3자의(예를 들어 부모, 자식, 파트너 등) 요청으로 내담자와 만나게 되는 경우라면, 여성주의상담자는 상담자의 의무, 역할, 책임 등에 대해 내담자에게 충분히 전달한다. 그녀는 또한 내담자가 어린 아이이거나 노인일 때는 내담자와 이들을 보살피는 사람과의 갈등에 대해서 모니터해야 한다.
- D. 여성주의상담자는 내담자와 어떤 방식으로든 성적인 친밀감을 나누어서는 안된다.

**IV. 상담자의 책임에 대한 인식**

- A. 여성주의상담자는 자기 자신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특히 내담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 B. 여성주의상담자는 그녀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내담자와 계약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녀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면, 여성주의상담자는 이에 대해 자문을 받거나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을 적극 활용한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그녀의 한계를 설명하고, 내담자가 그녀와 상담을 계속할 것인지, 다른 상담자로 바꿀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C. 여성주의상담자는 자신의 개인적, 전문적 욕구를 인식하고, 계속해서 자기 평가, 동료들로부터의 지원, 자문, 수퍼비전, 학습, 개인적인 치유의 시도를 전개한다. 그녀는 자신의 정서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 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D. 여성주의상담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훈련 정도와 이론적 배경을 평가하고, 여성주의적 지식의 발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연구한다. 그녀는 여성주의를 심리학적 이론에 통합하고, 계속해서 치유를 위한 훈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다.
- E. 여성주의상담자는 스스로를 돌보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녀는 자신의 욕구와 상처에 대해 인식한다. 그녀는 또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신에게 힘을 북돋우는 방법을 기꺼이 취한다.

#### V.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

- A. 여성주의상담자는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추구한다(교육 활동, 법개정을 위한 로비 등을 포함한 적절한 활동).
- B. 여성주의상담자는 내담자들 또는 상담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지역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
- C. 여성주의상담자는 부정의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을 격려한다. 그리고 정의를 위한 행보를 돕는다.
- D. 여성주의상담자는 지배적인 주류의 규범을 사용하라는 압력에 문제제기한다. 여성주의상담자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발전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내담자와 소통을 한다.
- E. 여성주의상담자는 부단히 지속되는 사회적 변화의 가운데서 정치적인 것이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다(FTI, 1990).

일곱 번째로 여성주의상담자 훈련에 필수적인 열 두가지 과목들이 제시되었다. 그것은 ① 여성주의 이론, ② 여성 관련 사회정치적·정책적·법적 이슈들, ③ 여성심리, ④ 연구방법, ⑤ 여성주의상담과 치료방법, ⑥ 집단 치료, ⑦ 다문화치료, ⑧ 사회 활동을 포함하는 거시적 기술, ⑨ 윤리 훈련, ⑩ 여성주의 페다고지, ⑪ 의식향상집단 참여, ⑫ 여성내담자에 대한 상담 훈련들이다(Enns, 1993).

그리고 1970년대에 발행되기 시작한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에 이어 여성주의상담과 관련된 저널 4 가지-*Women and Therapy*, *Journal of Feminist Family therapy*, *Feminism and Psychology*, *Affilia*-가 발행되었다.

두 번째 십년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주의자라는 것은 여성주의상담자가 되는 것에는 필요하나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고, 심리적 개입과 성격이론과 진단적 실천에 정치사회적 권력의 영향이 커서 지속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났고, 여성주의상담에 도움이 되는 이론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처음에 젠더편견으로 비판받았던 정신분석이 유용한 측면을 인정받게 되었고, 처음에 젠더중립적으로 보였던 가족치료가 비판받게 되었다. 여성주의적으로 여겨졌던 양성성과 실패공포 연구가 제한점을 가진다는 것이 드러났다. 여성의 다양성(경제적 지위, 성격 스타일, 성차별, 인종차별, 자민족중심주의, 연령차별, 이성애주의 등으로 인한)과 공통점을 동시에 찾아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고, 개인 변화와 사회 변화를 통합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다(Enns, 1993).

두 번째 십년이 끝나갈 때, 여성주의상담은 세 번째 십년에 응해야 할 도전을 몇 가지 받



았다.

Walker와 Dutton- Douglas(1988)는 “변화와 정서적 성장에 대한 이론과 통합된 여성 발달에 대한 완전한 여성주의 심리학 이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Mednick(1991)은 여성심리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연구하는 여성주의 연구자와 여성 개인의 심리역동을 강조하는 여성주의상담자 간의 균열이 메워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첫 번째 십년의 입장이 역전된 것이다. 첫 번째 십년에는 여성주의 연구자가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개인의 젠더역할에 대한 연구를 주로 했고, 여성주의상담자가 급진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성들의 치유를 위해 사회적 탈바꿈을 요구했다. 급진적 여성주의 상담자인 Rawlings(1993)는 가장 중요한 도전이 여성주의 상담에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통합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급진적 여성주의에서는 여성 삶이 위치한 사회 정치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 삶과 정신건강의 진보를 위해 사회변화를 주창하기 때문이다. Kaschak(1992)도 1980년대 여성주의상담자들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것은 전문가적 정당성과 이론의 깊이와 복잡성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여성의 공통점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십년과 여성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두 번째 십년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Brown과 Ballou(1992)는 인간 본성과 발달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모델을 다른 학문(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의 도움을 받아 여성주의심리학자들이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Worell과 Robinson(1993)은 여성주의상담의 핵심적 신념과 실천내용을 찾아 특유한 여성주의상담 정체성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했다. 여성주의상

담에서 사례 개념화를 어떻게 하고 총평과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spin(1993)은 여성주의상담이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인 맥락을 보는데 있어서 젠더 이외의 요인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인종, 계층, 민족성 등의 요인의 영향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주의상담이 서구 중산층 백인 여성의 맥락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Gilbert & Rossman은 첫 번째 십년은 사회의 진보적 분위기, 두 번째 십년은 사회의 보수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듯이, 세 번째 십년도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Enns, 1993).

그 외에 매맞는 아내는 학습된 무력감을 보이는 것이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는 것이므로, 여성주의상담을 통해 재학습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한 Walker(1985)가 있다.

20년을 정리하면서 Enns(1993)는 통합된 여성주의상담 이론이 요청된다는 것, 연구와 상담 실체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간의 공통성과 다양성을 통합하는 관점이 요청된다고 하였다.

### 세 번째 십년(대략 1990년대)

이 시기에 공헌한 여성주의상담자들은 가부장제를 더 해체하며 여성주의상담을 위한 새 모델을 만들어갔다.

첫째, 여성주의상담자들은 여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부장제를 더 해체하였다. Ballou와 Brown(1992)은 성격장애라는 진단명은 여성의 트러마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고, Worell과 Remer(1992)는 심리적 총평과 진단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작용한다고 했고, Burstow (1992)는 여성은 남성을 위한 몸으로 정의된다고 했다. Kaschak(1992, 1999) 젠더를 해체하고, 가족치료에서 젠더가 작용하는 방식을 해체하면서, 젠더는 명사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상호적이고 지속적으로 과정을 겪는 동사의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Porter, 2005).

둘째, 여성주의상담자들은 단일한 실재가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하나의 “올바른” 여성주의 이론이 없고, 하나의 “올바른” 여성에 대한 인식론적 입장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맥락에, 여성 삶의 다양성에, 다중의 억압(인종, 민족성, 계층, 성적 지향)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Porter, 2005).

셋째, 가장 중요한 성취는 여성주의상담자들이 여성주의상담을 위한 새 모델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다중적인 실재들, 다중적인 경험들, 다중적인 역할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여성주의 이론 수립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Worell과 Remer(1992)는 역량강화 모델을 만들고, Burstow(1992)는 여성의 유대를 중심으로 역량강화하는 작업을 했다(Porter, 2005). Kaschak(1992)은 통합 모델을 만들고, 총평을 위한 “문제의 지도”를 열 세 가지로 제시했다. 그것은 ① 다른 여성, 남성, 아이들과의 관계의 질과 중심성.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그 관계들은 자아감과 자긍심을 결정하는가?, ② 부모, 동료, 교사, 미디어, 다른 중요한 원천에 의해 부과된 제한에 대한 과거 경험과 현재 경험과 뚜렷한 침해(폭력, 근친강간, 강간을 포함하는) 경험, ③ 외모와 그 중심성에 대한 자신의 평가, ④ 자세, 몸가짐, 걸음걸이, 표현, 근육조직, 움직임 포함하여 자신을 신체적으로 드러내는 방식과 특별 이슈를 다룰 때, 상담할 때 같은 상황에서 달라

지는 방식, ⑤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파편화의 정도, ⑥ 일반적 상황, 특수 상황에서 자신이 가려진다는 감각 그리고 노출된다는 감각, ⑦ 식사/다이어트 전략, ⑧ 상실과 실망, 특히 가능성의 상실과 자아감의 상실, ⑨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상실 그리고 개인적 아버지와 문화적 아버지들과의 얽혀있음, ⑩ 막연한[남성] 관찰자와의 동일시 정도, ⑪ 사건들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의 정도, ⑫ 수치의 경험, ⑬ 자아감과 자긍심들이다.

1993년에는 미국심리학회 산하 여성심리학회 회원이 조직하여 ‘여성주의 실천에서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1차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는 이론, 총평, 상담, 교과과정, 페다고지, 연구, 다양성, 수퍼비전, 박사후 훈련의 9가지 주제를 논의했다(Worell & Johnson, 1997).

90년대의 공헌을 정리하면서 Porter (2005)는 젊은 여성들이 여성주의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급진적이고, 다문화적이고, 구성주의적인 이론이 요청된다는 것과 상담자와 내담자가 행동하게 하는 생태와 반지배가 통합된 여성주의상담 이론이 요청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십년이 끝나갈 때 Contratto와 Rossier(2005)는 미래를 향한 질문으로 1960년대의 강렬한 정치적 격동 속에서 발생한 여성주의상담이 그 뿌리를 지키고 있으나, 성역할 사회화가 상황적 스트레스 요인인데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나, 여성 상담전문가의 수가 증가했는데 여성주의상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여성주의 생물학이 발달하는데 여성주의 상담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등이 있다고 하였다.

네 번째 십년(대략 2000년대)

네 번째 십년은 이제 막 끝나서, 아직 그 시기를 정리한 논문은 없으나, 2002년에 열린 여성주의상담소 연차대회에서 몇몇 여성주의 상담자들이 미래를 전망하였다.

Hill과 Ballou(2005)는 여성 경험에 가치 부여하기, 심리적 고통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여 인식, 상담관계에서의 권력에 주의 기울이기, 젠더분석과 다른 억압요인 통합하기, 사회변화 창조를 우선시하기가 미래의 초석이라고 했다. Hill과 Anderson(2005)은 권력, 억압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문제들의 제거, 정서적 안녕을 가치롭게 여기기, 상담자와 상담을 가치롭게 여기기, 상담이 지역공동체에 통합되기, 상담자의 작업환경을 양육적으로 만들기를 여성주의상담의 전망으로 보았다. Cohen과 Ballou(2005)는 대학 외에 여성주의상담 연구소가 설립되어 여성주의상담자를 양성하는 것을 전망하였다. Liriano(2005)는 지역사회에 여성주의적 사고를 적용하려면 자원의 이용가능성과 접근성의 증가, 인간의 다양성과 자기결정에 대한 진심에서 우러난 가치 부여와 존중, 배려심이 있고 연민을 가진 지역사회 구성원, 개인적 연결감과 협력에 자리 잡은 가치의 증가, 정치적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Ballou(2005)는 여성주의상담은 분석과 행동을 통합하는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인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하고, 다중의 억압을 자각하고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정치적이고 인식론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원천으로 가치부여하는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 외의 성과로는 Ballou, Matsumoto와 Wagner(2002)는 여성주의적, 다문화적, 생태학적 새

패러다임을 만들었고, Kaschak(2001)은 여성주의상담에서의 영성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Enns(2004)는 자유주의적, 급진적, 문화적 여성주의 뿐만 아니라 유색여성, 다문화적, 초국가적, 포스트모더니즘적, 레즈비언/동성애, 제3물결 여성주의의 여성주의상담에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이제 미국의 여성주의상담은 다섯 번째 십년을 맞이하고 있다. *Women & Therapy*는 특집호에서 21세기의 여성주의와 여성주의상담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는데 Bruns와 Kaschak(2011)은 21세기에 여성주의상담이 효과적이고 적절하려면, 가부장제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단결하면서도 다양하게 표출되는 억압을 놓치지 않게 다면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여성주의상담을 탄생시킨 제2물결 여성운동의 뿌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40년간 드러난 여성과 소수자의 다양성을 담는 포괄적인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 다섯 번째 십년에 넘겨진 과제인 것이다.

미국 여성주의상담의 역사 분석

미국 여성주의상담의 역사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드러난다.

첫째, 미국의 여성주의상담은 제2물결 여성운동의 맥락에서 시작되었지만 초기부터 Greenspan같은 상담전문가들이 관여하였다. Greenspan(1995)은 우리 속에 숨 어있는 힘 감사의 글에서 “이 책은 여성운동에서 짝이 트고 여성운동의 신념에서 쓰여졌다. 따라서 여성운동 자체에 제일 먼저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주의자인 상담전문가들에 의해 여성주의상담이 탄생되었기에, 10여년 안에 상담소와 쉼터의 설립 이

외에 미국심리학회 산하에 여성분과가 만들어지고, 기본적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심리학회 산하 여성심리분과와 여성주의상담소가 만들어졌다.

둘째, 첫 십년에는 상담에서 여성주의를 강조하였으나, 두 번째 십년에는 여성주의상담의 전문성을 추구에 따라 개인의 심리역동에 초점을 두는 상담으로 변화하여 여성주의와 여성운동으로부터 거리가 생겼다.

셋째, 처음에는 여성의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비백인 여성주의상담에 의해 백인 중산층 여성 중심임이 지적되었다. 두 번째 십년부터는 인종, 계층, 민족성 등의 젠더 이외의 사회적 요인에도 관심을 쏟으며 여성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넷째, 세 번째 십년부터 여성주의상담 고유의 모델과 패러다임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 한국 여성주의상담의 역사

한국의 여성주의상담은 1977년 이화여대에서 처음으로 개설되기 전후로 전파되기 시작한 여성학을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한국 여성주의상담의 역사를 미국의 경우처럼 세 개의 십년으로 나누고, 각 십년마다 그 시기의 사회적 성과와 연구적 성과를 기술하겠다. 연구자는 한국의 역사를 세 개의 십년으로 나누어보면서 각 십년마다 조직(1983), 법(1994), 체계화된 교육(2005)이라는 뚜렷한 사회적 성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사회적 성과와 연구적 성과로 나누어 기술하는 이유는 연구자가 한국의 사회적 성과와 연구적 성과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독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 연구적 성과는 출판되었거나 문서자료가 남은 것들 중에서 다른 연구자가 그 의미를 인정하여 이미 인용한 것 또는 연구자가 본 논문에서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선택했다.

한국의 여성주의상담 역사를 정리한 글로는 정춘숙(2005)의 “한국 여성주의 상담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저자가 밝혔듯이 “여성의 전화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를 살펴본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앞에서 밝혔듯이 다른 문헌과 연구자의 경험으로 보완하여 한국 여성주의상담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였다.

#### 첫 번째 십년(1983-1993)

##### 사회적 성과: 조직

미국의 여성주의 상담이 급진적인 여성운동에서 시작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주의 상담이 시작된 곳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여성인권운동단체였다.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여성학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여성해방을 실천하고자 하면서 아내구타 문제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1980년대의 군부 독재라는 정치적 상황에서 당시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아 사회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여성문제였기 때문이다. 상담을 여성운동의 매개로 선택하여 1983년 매맞는 아내들을 상담하는 여성의 전화가 창립되었다. 여성의 전화는 창립취지문에서 “폭력의 희생자들을 돕고, 가정에서 폭력을 추방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심리적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상담사업으로 여성운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정춘숙, 2005).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생각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매맞는 아내들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가치중립적인 태도가 아니라 아내 때

리기를 성차별로 정의하는 여성주의라는 가치를 가지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태도를 갖게 해준 것이 여성학이고 여성주의상담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의 진화는 여성주의철학의 관점에서 상담을 시작했기에, 한국 여성주의상담의 기원으로 보는 것이다. 1991년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창립되었는데, 여성의 진화가 만들어진 민족민주운동시대와는 달랐던 민주화의 물결이 시작된 맥락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성폭력사건에 여성학자, 여성운동가가 결합되면서 개소되었다(변혜정, 2006). 이어 1995년에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구성 상담소가 창립되었고 현재는 성폭력상담소로 운영되고 있다.

#### 연구적 성과

첫째, 몇몇 선구자들이 여성주의상담을 우리나라에 소개했다. 여성주의상담에 대해 이영희(1985)는 “여성상담은 한국사회에서 최근 일고 있는 여성운동과 여성연구에 힘입어 독자적인 상담의 특수영역으로 출범”했다고 그 시작을 소개했다. 권영자와 동료들(1985)의 여성상담의 실제와, 최해림(1989)의 “여성상담의 과정과 기법”도 여성주의상담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둘째, 여성주의상담을 탄생시킨 모태가 된 의식향상집단과 여성주의 집단상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정소영(1985)은 “의식향상집단이 여성의 양성공존성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를, 박애선(1993)은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여대생의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 수준과 적응변인에 미치는 영향”라는 박사학위논문을 썼다. 정소영과 박애선은 이 연구 결과로 여성의 진화에서 여성주의상담 교육을 하였다(정춘숙,

2005).

#### 두 번째 십년(1994-2004)

##### 사회적 성과: 법

첫 번째 십년에 설립된 여성인권조직들이 한국사회를 의식화한 결과 새롭게 등장한 여성내담자들을 지원하는 법이 제정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많은 상담소가 설립된 시기이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받은 성폭력전문상담원이 양성되기 시작했다. 1997년에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고 교육받은 가정폭력전문상담원이 양성되었다.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고용평등상담실이 운영되기 시작했고, 2004년에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고 교육받은 성매매전문상담원이 양성되었다. 그 밖에도 24시간 상담을 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 One-stop이 설립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이주여성지원기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변혜정(2006)의 말대로 이 시기는 “1980년 초기와 비교해보면 현재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기가 된 것이다.

법의 제정 이외에도 몇 가지 성과가 있었다. 첫째 전문가가 하는 상담소와 연구실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1998년에는 교육심리학(상담심리전공) 박사인 현혜순이 한국여성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여성주의상담(여성주의 인지행동치료)을 교육하고 여성주의상담을 하고 있다. 2002년에는 상담심리학 교수인 김민예숙이 여성주의상담연구실을 만들어, 여성주의상담을 하고 여성주의상담을 교육하여 여성주의상담자를 양성하고 있다.

둘째 아시아 내에서 국제교류가 이루어졌다.

APWLD(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가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여성주의상담자들의 “페미니스트 카운슬링 워크숍”이 1998년 한국에서 열려 일본, 인도, 태국 등 10여 개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모여 강의를 듣고 토의를 하였다(여성신문, 1998). 1년 후인 1999년에도 APWLD의 주최로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여성주의상담자들의 “페미니스트 카운슬링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두 번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여성주의상담자 워크숍을 통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성주의상담이 점검되었는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성주의상담이란 서양의 여성주의상담을 도입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기에 워크숍의 결론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험으로 독자적인 이론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김민예숙, 개인기록).

#### 연구적 성과

이 시기의 성과는 첫째, 한글로 된 여성주의상담 문헌이 거의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책과 논문들이 비교적 많이 출판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여성주의상담의 중요한 저서인 우리 속에 숨어있는 힘(1995)과 여성주의상담의 이론과 실제(2004)의 번역 출판은, 한국의 상담활동가들이 자율적으로 여성주의상담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 외에 한국여성의 전화(1994)의 여성상담 심포지움 자료집은 여성의 전화 10년의 경험을 정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최선화(1995)의 “여성심리와 여권주의 상담법”, 최해림·김영희(1996)의 “한국여성의 심리장애와 여성치료의 방향”을, 장연집(1996)의 “여성주의 상담과

심리치료”는 여성주의상담의 이론을 첫 십년보다 깊게 논의하게 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김예숙(1997)의 “여성상담에 대한 대상관계 이론의 접근”은 여성주의 정신분석을 여성주의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 논문이라는 의미를 가진다(성미라, 2003). 김민예숙(1997)의 여성주의상담 연습교본은 여성주의상담활동가를 위한 첫 교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김예숙(1998)의 “여성주의상담에 관한 소고”와 “여성주의이론과 여성주의상담”(1999)은 여성주의상담의 이론을 정립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여성주의 슈퍼비전에 관한 소고”(2000)는 여성주의 슈퍼비전을 처음 소개했다는 의미를 가진다(정춘숙, 2005). 김광은(2000)과 박진아(2000)의 논문은 상담활동가들의 여성의식을 연구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박경(2003)과 이지연(2004)의 논문은 여성주의상담의 방향을 탐색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김민예숙·장문순(2004)의 “여성주의상담자 교육 모델에 관한 고찰”은 교육 모델을 제시하여 미래의 교육을 디자인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둘째, feminist counseling의 번역용어가 여성주의상담으로 통일되었다는 것이다. 첫 십년에는 여성상담, 여권상담, 여성중심상담 등으로 번역되어 통일된 이름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장연집(1996)이 ‘여성주의 상담’, 김민예숙(1997)이 ‘여성주의상담’이라는 번역용어를 쓴 이후 거의 모든 출판물에서 ‘여성주의상담’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 세 번째 십년(2005-)

##### 사회적 성과: 체계화된 교육

역사는 20년이 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주의상담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교과과

정을 통해 교육되는 경우가 드물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기가 어려웠다. 여성폭력 방지법 제정 이후에도 여성주의 상담은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 성매매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 중 세 시간 정도 강좌가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한 교육을 통해 여성주의 상담을 배우고자하는 사람들은 늘었고 법제정으로 여성폭력피해상담소가 증가하면서 여성주의 상담의 필요성은 증대되었으나,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전무했다. 이에 2005년부터 3년에 걸쳐 김민예숙과 서울여성의 전화가 체계적인 “여성주의 상담전문가양성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다. 이것은 여성의 전화의 여성주의 상담 교육 경험과 김민예숙·강문순(2004)의 논문에 근거한 체계화된 교육이었고, 동일한 교육생에게 이론과 실습을 3년 동안 교육하여 몇몇의 전문가를 배출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김예숙(2007)은 “여성주의상담 전문가 교육 3년에 대한 성찰”에서 이 교육을 분석했다.

2009년 김민예숙여성주의상담연구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다문화적 접근을 포괄하는 “이주여성 상담을 위한 여성주의상담 전문가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여성의 다양성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상담 교육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미혼모, 레즈비언, 탈북여성 등 다양한 조건 속의 여성들의 상담에 대한 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그 외의 성과로는 2010년에는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여성주의상담실천연구소를 개소하였다. 그리고 여성건강과 치유 센터 준비위원회가 여성인권단체 소속이 아닌 여성주의상담소를 개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 연구적 성과

첫째, 한국 여성주의상담들의 저서가 출판되었다. 김민예숙과 서울여성의 전화(2005)는 왜 여성주의상담인가를 출판하였는데, 이것은 여성주의상담을 처음으로 시작한 상담소와 첫 연구기관인 여성주의상담연구실이 만나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주의상담의 이론과 실재를 다룬 첫 저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성의 전화 역사가 정리되고, 여성주의 상담자의 생애사가 기록되고, 여성주의상담의 실제(슈퍼비전, 의식향상집단, 여성주의 집단상담)가 분석되었다.

둘째, 한국 여성주의상담의 초기 조직인 여성의 전화와 성폭력상담소에서의 여성주의상담의 실재가 정리되었다. 정춘숙(2005)은 “여성의 전화는 상담을 매개로 여성운동”을 하고 있고, “여성주의상담의 목표는 사회변화”라고 했는데 이것은 1983년 여성의 전화 창립 당시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변혜정(2006)은 “이제까지의 반성폭력운동이 상담을 통해 피해여성의 고통을 가시화하고 그 고통을 약화시키거나 해결해주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놓았다면, 앞으로의 운동은 피해경험들이 주체가 되어 ‘서로 말하기(듣기): 상/담’을 통해 피해경험들을 다른 의미로 만드는 운동이어야 한다”고 말해 상담을 통한 여성운동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즉 “상/담이란 자기능동성을 구성하는 ‘주체되기’ 과정으로서 여성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혜정의 해석은 여성주의철학을 통한 여성과 소수자의 변화가 여성주의상담의 목표라고 보는 김민예숙(2010)의 개념정의와 일맥상통한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원리를 적용할 때 정치가 개인에게 준 영향과 함께, 상담에서는 개인이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도

주목하자는 것이다. 다만 상담자가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내담자의 변화를 조력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에, 상담자의 전문적 기술 습득이 여성운동으로서의 상담에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성주의상담 과정의 모델이 만들어져 교육되었다 (김민예숙, 2011). 변혜정(2006)의 지적대로 “여성주의 상담은 그 내용, 방법, 태도 등도 여성주의적으로 구성되어야”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모델이 개발된 것이다. 이 모델을 최초로 교육받은 교육생들의 피드백은 “여성주의상담에 대한 구체적 그림을 그리게 하는 효과”, “여성주의상담의 매뉴얼, 지도, 구조틀을 갖게 된 것이 너무 고맙고 기쁘다” 등이었다(운영위원회 회의록, 2011). 이것의 의미는 두 번째 십년의 과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해, 이제는 한국의 여성주의상담자가 독자적으로 만든 모델로 여성주의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젠더의 이원성의 문제에서 출발한 여성주의상담에서 이원성 자체를 넘어가자는 시도가 등장하였다. 김민예숙(2009)은 ‘평등이 있는 평화’를 지향하는 ‘자아초월적 여성주의 상담’을 제안하였다. 억압집단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이원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원성을 초월하는 관점에서 이원성을 포괄하는 철학을 가지고 여성주의상담을 하자는 제안인 것이다. 여성주의상담자는 아니지만 여성학자 고미송(2010)도 불교적 관점에서 이원적인 여성주의 인식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성찰하고 있다. 김민예숙(2010)이 여성주의상담워크숍을 할 때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강의가 있어 수강을 했다고 말한 교육생(이용순, 2010, 개인교신)이 있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자아초월과 여성주의를 지향하

는 여성들도 등장하고 있다.

### 한국의 여성주의상담 역사 분석

한국 여성주의상담의 역사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드러난다.

첫째, 한국의 여성주의상담은 여성운동의 매개로 선택되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담활동가/여성운동가들이 여성주의상담을 주로 담당해왔다.

둘째, 여성주의 상담을 상담활동가/여성운동가가 담당해왔기에,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법과 제도가 빠른 시간 안에 마련되는 성과가 있었다.

셋째, 세 번째 십년에 상담 자체가 운동일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넷째, 세 번째 십년에 여성주의상담 과정의 모델이 만들어졌다.

다섯째, 젠더의 이원성을 비롯한 이원성 자체를 초월하는 관점을 여성주의상담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세 번째 십년에 시작되었다.

### 미국과 한국 여성주의상담의 역사 비교 분석

미국 여성주의상담의 역사와 한국 여성주의상담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드러난다.

첫째, 공통점으로서 여성운동의 맥락에서 여성주의상담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차이점으로서 미국에서는 상담전문가가 한국에서는 상담활동가가 여성주의상담을 주로 이끌어왔다는 점이다.

셋째, 차이점으로서 미국에서는 여성주의상담전문가집단이 존재하고 상담이론과 상담모델 등 전문적 성취가 이루어졌으나 여성주의



상담의 뿌리인 여성운동의 정신이 지켜지고 있는가를 자문하는 지점에 이르렀고, 반면 한국에서는 여성주의가치관은 지켜왔으나, 여성주의상담전문가의 존재가 확보되지 못해 이론적 성취도 적고 여성주의상담전문가를 찾는 내담자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넷째, 차이점으로서 미국에는 소수이지만 Kentucky대학 등 여성주의상담을 위한 대학원 수준의 교과과정이 있는 교육기관이 있고, 한국에는 전무하다는 점이다. 미국과는 달리, 한국 대학원에서는 여성주의상담 과목을 개설하는 일조차 희귀한 것이다.

다섯째, 다문화사회인 미국에서는 소수인종과 소수민족 출신 여성주의상담전문가들의 주체적 요구로 여성주의상담이 다문화상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등장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여성주의상담이 다문화상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 논 의

### 한계와 공헌

본 논문의 한계는 미국 여성주의상담 역사에 대해 미국 여성주의상담자의 분석에 의지하여 주로 서술을 하였지 체계적인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40년간의 역사를 독자적으로 연구하지 못한 것은 연구자의 한계이다. 앞으로 더 주체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되어지기 바란다.

본 논문의 공헌은 여성의 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 좀 더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국 여성주의상담 역사를 새롭게 쓰며 분석한 점이다.

### 시사점

미국과 한국의 여성주의상담 역사의 비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시사한다.

첫째, 한국에 여성주의상담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주의상담전문가들은 그들을 요청하는 내담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폭력피해여성상담기관에서 활동하는 상담활동가들의 교육과 수퍼비전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그들을 양성하려면 교육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상담전문가가 여성주의상담을 만들고 교육기관을 만들었기에 여성주의상담전문가들이 계속 양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설립 가능성이 적극 모색되어야 하는데 대학원에 학위과정이 설치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여성심리학회나 여성학회 차원에서도 양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주의상담전문가 양성 시 여성주의철학의 가치관을 확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역사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은 여성주의상담과 여성운동과의 관계이다. 상담의 전문성에 치우쳐 여성주의상담의 출발이 여성주의철학과 운동이라는 것을 잊게 되면 여성주의상담자가 소진될 때 재충전시켜주는 정신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여성주의상담전문가를 양성할 때에 여성주의자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상담 속에서 운동성을 찾는 관점을 확실하게 갖게 해야 한다.

셋째, 여성주의상담 과정 자체가 운동일 수 있게 하는, 과정마다 여성주의가 섬세하게 배어든 상담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여성운동가가 상담을 여성운동의 매개로 선택했다면, 이제는 상담전문가가 운동을 상담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상담 모델이 요청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모델이 개발되어 관련 서적이 출판되기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모델의 개발이 시작되었을 뿐이다. 앞으로 상담 시작 시의 라포형성과정, 문제탐색과정, 목표설정과정, 사례개념화과정, 상담목표 세우기 과정, 상담기법선택과 실행과정, 종결과정, 그리고 상담관계 등 상담의 전 과정이 여성주의적인 세련된 모델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주의상담전문가들 또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여성들이 모여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여성주의상담학회 구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래와 관련된 것이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주의 상담전문가들의 작업 조건이다. 미국의 많은 여성주의상담전문가들은 Greenspan이나 Brown의 경우처럼 개인상담소를 개소하여 상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여성주의상담전문가들이 개인상담소를 개소할 것이다. 한편 법이 여성주의상담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를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만들었듯이, 법을 통해 상담전문가를 위한 조건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침을 보면 사회복지사 2급 취득자는 가정폭력 방지 업무나 외국인 관련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하면 상담소장이나 시설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담자를 포함한 그 이외의 사람들은 5년 이상 종사

해야 소장이나 시설장이 될 수 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0). 교육기관에서 상담모델로 교육받으려는 이유는 전문가로 일하기 위해서이다. 내담자가 증가하고 있기도 하지만, 작업조건이 좋다면 전문가가 될 동기도 강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여성주의상담을 발전시키려면 앞으로 배출될 여성주의상담전문가들의 작업 조건도 가능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성주의상담전문가를 요청하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의 비교는 교육기관의 필요성과 여성주의 가치관의 고수와 상담 모델의 개발, 그리고 상담자의 작업조건을 한국 여성주의상담자들에게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

## 참고문헌

- 고미송 (2010). *그대가 보는 적은 그대 자신에 불과하다: 불교적 관점에서 본 여성주의 인식론*. 서울: 푸른사상.
- 권영자 외 (1985). *여성상담의 실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광은 (2000). 여성주의 상담원들의 여성의식: 여성의 전화 상담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 15-25.
- 김민예숙 (1997). *여성주의상담 연습 교본*. 인천: 여성의 전화.
- 김민예숙 (1999). APWLD 주최 워크숍 참가 개인기록.
- 김민예숙 (2009).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 *김민예숙여성주의상담연구실 6회 아카데미 자료집*, 25-28.
- 김민예숙 (2010). *여성주의상담의 개념과 역사*. 김민예숙여성주의상담연구실 *여성주의상담*

- 강좌 자료집, 1-9.
- 김민예숙 (2011). 여성주의상담 과정의 구조화. 김민예숙여성주의상담연구실 8회 아카데미 자료집, 6-28.
- 김민예숙 외 (2005). 왜 여성주의상담인가: 역사, 실제, 방법론. 서울: 한울.
- 김민예숙·강문순 (2004). 여성주의상담자 교육 모델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 1-25.
- 김예숙 (1997). 여성상담에 대한 대상관계이론의 접근.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예숙 (1998). 여성주의상담에 관한 소고, 춘해대학 논문집, 10, 7-18.
- 김예숙 (1999). 여성주의이론과 여성주의상담, 춘해대학 논문집, 11, 353-361.
- 김예숙 (2000). 여성주의 수퍼비전에 관한 소고, 춘해대학 논문집, 12, 35-44.
- 김예숙(2007). 여성주의상담 전문가 교육 3년 동안 성찰. 춘해대학 논문집 19, 1-9.
- 김예숙 (2008). 여성주의상담의 역사에 관한 연구. 춘해대학 논문집, 20, 1-18.
- 박경 (2003). 여성정신건강과 여성주의 치료의 방향. 한국여성학, 19, 215-242.
- 박애선 (1993).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여대생의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 수준과 적응 변인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진아 (2000). 여성상담기관과 여성주의 상담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변혜정 (2006). 반성폭력운동과 여성주의상담의 관계에 대한 연구-상담지원자 입장에서-. 한국여성학, 22, 229-272.
- 성미라 (2003). 매저키즘.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서울: 여이연.
- 여성위원회 회의록 (2011. 2). 김민예숙여성주의상담연구실 카페.
- 여성신문 (1998.12). 아시아 첫 여성주의상담 워크숍 열려.
- 여성부 (2010).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이규미 (1996). 여성상담의 특징과 여성상담자의 전문적 자질. 한국여성심리연구회지, 1, 128-138.
- 이영희 (1985). 여성상담의 기초개념. 여성상담의 실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이용순 (2010). 개인교신.
- 이장호 (1982). 상담심리학 입문 제2판. 서울: 박영사.
- 이지연 (2004). 여성주의 상담의 적용실제와 방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 773-791.
- 장연집 (1996). 여성주의 상담과 심리치료. 여성연구논총, 11, 5-25.
- 정소영 (1985). 의식향상집단이 여성의양성공존성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춘숙(2005). 한국 여성주의 상담의 역사. 김민예숙 외 (편) 왜 여성주의상담인가: 역사, 실제, 방법론. (pp.46-95). 서울: 한울.
- 최선화(1995). 여성심리와 여권주의 상담법. 여성연구논집, 6, 145-154.
- 최혜림 (1989). 여성상담의 과정과 기법. 인간이해, 10, 49-57.
- 최혜림·김영희 (1996). 한국여성의 심리장애와 여성치료의 방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8, 153-167.
- 한국여성의 전화 (1994). 여성상담심포지움 자료집. 서울: 한국여성의 전화
- Ballou, M. (2005), Threats and Challenges to

- Feminist Therapy. *Women and Therapy*, 28, 201-210.
- Ballou, M., Matsumoto, A. & Wagner, M. (2002). toward a feminist ecological theory of human nature: Theory building in response to real-world dynamics. In M. Ballou & L. S. Brown (Eds.). *Rethinking mental health and disorder: Feminist perspectives* (pp.99-114). NY: The Guilford Press.
- Broverman, I. K., Broverman, D.M., Clarkson, F, Rosenkrantz, P., & Vogel, S. (1970). Sex-role stereotyping and clinical judgments of mental heal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250-256.
- Brown, L. & Ballou, M. (1992). (Eds.)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Feminist Reappraisals*. NY: The Guilford Press.
- Bruns, C. M. & Kaschak, E. (2011). Feminism: Feminist therapies in the 21st century. *Women and Therapy*, 34: 1-5. NY: the Haworth Press, Inc.
- Chodorow, N. (2008). 모성의 재생산. 김민예 숙 · 강문순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은 1978년에 출판).
- Cohen, M. M. & Ballou, M. (2005). Visions and Aspirations: Feminist Therapy and the Academy. *Women and Therapy*, 28, 177-188.
- Contratto, S. & Rossier, J. (2005). Early trends in feminist therapy theory and practice. *Women and Therapy*, 28, 7-25.
- Corey, G. (2003).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제6판. 조현춘, 조현재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1년에 출판).
- Enns, C. Z. (1993). Twenty years of feminist counseling and therapy: From naming biases to implementing multifacete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1, 3-87.
- Enns, C. Z. (2009). 여성주의와 상담. 김민예 숙 · 손연주 옮김, 서울: 한울. (원전은 2004년에 출판).
- Friedan, B. (1989). 여성의 신비. 김행자 옮김. 서울: 평민사. (원전은 1963년에 출판).
- FTI (1990). FTI code of ethics. In H. Lerman & N. Porter (Eds.). *Feminist ethics in psychotherapy*. (pp.37-40). NY: Springer.
- Gilbert, L. A. (1980). Feminist therapy. In A, Broadsky & R. T. Hare-Mustin (Eds.), *women and psychotherapy* (pp.245-265). NY: Guilford.
- Greenspan, M. (1995). 우리 속에 숨어있는 힘. 고석주 옮김, 서울: 또하나의 문화. (원전은 1983년에 출판).
- Israeli A. L. & Santor, D. (2000). Reviewing effective components of feminist therapy.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13, 233-247.
- Hill, M. & Anderson, G. (2005). Feminist Therapy Practice: Visioning the Future, *Women and Therapy*, 28, 165-176.
- Hill, M. & Ballou, M. (2005). From the past toward the future. *Women and Therapy*, 28, 161-163.
- Lerman, H. (1986). *A Mote in Freud's Eye: From Psychoanalysis to the Psychology of Women*.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erner, H. G. (2006). 여성심리치료, 한인영 · 박영희 옮김, 서울: 하나의학사. (원전은 1988년에 출판).
- Liriano, D. (2005), Fostering Feminist Principles in Our Community: How Do We Get There??. *Women and Therapy*, 28, 189-200.
- Kaschak, E. (1981). Feminist psychotherapy: The

- first decade". In S. Cox (ed.) *Female psychology: the emerging self* (pp. 387-400). NY: St. Martins.
- Kaschak, E. (1992). *Engendered lives: A new psychology of women's experience*. NY: Basic books.
- Kaschak, E. (2001). *The invisible alliance: Psyche and spirit in feminist therapy*. NY: The Haworth Press, INC.
- Porter, N. (2005). Location, location, location: Contributions of contemporary feminist theorists to therapy and practice. *Women and Therapy*, 28, 143-160.
- Rawlings, E.I., & Carter, D.K. (1977). Feminist and nonsexist psychotherapy. In E.I. Rawlings & D.K. Carter, (Eds.), *Psychotherapy for women* (pp.49-76).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Sturdivant, S. (1980). *Therapy with women*. NY: Springer.
- Walker, L. E .A (1985) Feminist therapy with victim/survivors of interpersonal violence. In L.B. Rosewater & L.E.A. Walker (Eds.). *Handbook of feminist therapy* (pp.203-214). NY: springer.
- Williams, E. F. (1976). *Notes of a feminist therapist*. NY: Praeger.
- Worell, J. & Johnson, N. G. (1997). Shaping the future of feminist psychology: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e. Washington, D.C.: APA.
- Worell, J. & Remer, P. (2004).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 김민예숙 · 강김문순 옮김, 서울: 한울. (원전은 2003년에 출판).

1 차원고접수 : 2011. 2. 8.  
심사통과접수 : 2011. 6. 8.  
최종원고접수 : 2011. 6. 22.

##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History of Feminist Counseling of the USA and Korea**

**Yea-sook KimMin**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This study searches what is needed for feminist counseling which is introduced to our country 30 years ago. As a way of exploring, the history of feminist counseling of the USA and that of Korea were analyzed comparatively. Feminist counseling of the USA has forty years of history and that of Korea has thirty years of history. There is a commonality that feminist counseling started in the context of feminist movement. There are some differences: Professional counselors in the USA and activist counselors in Korea have led feminist counseling; In the USA professional counselors have done professional achievements but reaches the point where they ask themselves whether they keep the spirit of feminist movement which is the root of feminist counseling, but in Korea the spirit of feminist movement has kept but the need for professional counselors is not met because of the lack of them; There are curriculum on feminist counseling on the graduate level in the USA, but there is none in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establishing the educational institute for feminist counseling, developing the model for feminist counseling, insisting the feminist value, and prepar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counselors become the tasks of Korean feminist counselors.

*Key words* : *feminist counseling, history, activist counselor, professional counselor, feminist value*